

고려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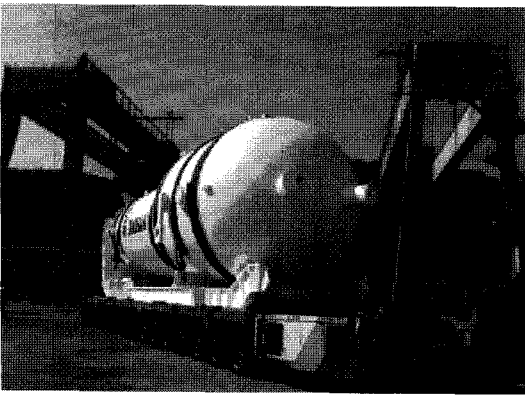
신용화 전무 부사장 승진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2011년 3월 4일부로 임원인사를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신용화 부사장 승진, 박철균 상무 (경영관리부 재경팀, 업무심사팀 담당) 승진이 있었다.

대한통운

UAE 원전 물류 전담업체 선정



대한통운(사장 이원태)은 사상 최초의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인 한국전력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 국제물류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기간 중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원자력 발전 기자재 공급사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브라카 원전 건설 현장까지 원전 건설을 위한 기자재의 해상운송과 현지 항만 하역, 중량물 운송, 컨테이너 운송을 비롯한 물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대한통운은 항만하역, 육상운송, 중량물 운송 등 물류 전 과정에 걸친 포트폴리오와 80여 년에 걸쳐 축적한 물류사업 노하우,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프로젝트의 완벽한 수행에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대한통운은 과거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1호기 발전소를 비롯해 월성, 신월성 1?2호기, 영광 원전과 서울 당인리, 보령화력 발전소, 안양, 분당 열병합발전소의 발전 및 건설 기자재를 완벽하게 수송한 바 있으며 198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담맘, 라스알가 항과 카디마 항 등지에서 항만하역과 육상운송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

양해해운

이상훈 부회장 취임

3월 31일 양해해운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상훈 대표이사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상훈 대표이사 부회장은 CFO직을 겸임하게 된다.

이날 이상훈 부회장은 “양해해운과 인연이 특별하다”며 “이력으로 보면 맞는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같은 특별한 인연을 잘 살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부회장은 1974년 서울대 상과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은행 거쳐 대우그룹 전무, 동부아남 반도체 부사장 역임, C&F 캐피탈 상임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최영후 대표이사 부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상훈 부회장과 각자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STX 팬오션

STX마린서비스(주)설립

STX(대표 이종철)가 선박관리 및 해양서비스 등의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STX마린서비스(주) (가칭)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설립했다.

STX는 지주·무역·자원개발 등 사업부문과 선박관리 및 해양서비스 등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자율경영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TX는 이같은 새로운 회사 설립은 STX의 선박관리 및 해양서비스 등 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회사별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STX마린서비스(주)(가칭)의 설립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선박관리 및 해양서비스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이다.

한편 STX마린서비스(주)(가칭)는 100여 척의 관리선을 기반으로 Scale Merit를 활용하여 선박 보선, 신조 감리, 해사기술 서비스, 해상 보험, 선원 공급과 교육 및 관리 등 다양한 선박관리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해운

현대상선에 VLGC 1척 발주

국내 4위권 해운회사인 SK해운(대표이사 황구호)이 최근 현대중공업에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1척을 발주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은 최근 현대중공업과 8만2천CBM(m³)급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1척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SK해운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발주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SK해운이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선박과 같은 선종이다.

SK해운 관계자는 “이 선박은 SK가스와 수송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LPG물량을 실어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첫 대형 사선 탱커 명명식 개최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첫 대형 사선 유조선 명명식을 가졌다.

3월 2일 오전 11시 울산 현대 중공업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선박의 스폰서를 맡은 최은영 회장을 비롯해, 윤주식 부사장, 백대현 전무 및 현대 중공업 이재성 사장 등 관련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한진해운의 첫 대형 사선 유조선의 명명을 축하했다.

‘한진 라스 타누라(HANJIN RAS TANURA)’로 이름 지어진 동 선박은 30만톤급 대형 유조선으로서 선체 길이만 333미터로 프랑스의 에펠탑(320.755미터-안테나 포함)보다 약 13미터 더 길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하루 석유 사용량인 약 200만배럴(barrel)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유조선이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연료유 탱크 보호 규정(FOTP-Fuel Oil Tank Protection)에 따라 연료유 탱크를 이중선체 구조로 설계하여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존 엔진에 비해 연비 개선 능력이 탁월한 엔진을 장착하여 경제성에도 주안점을 둔 선박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현재 약 100여척의 다양한 벌크 선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상선

중국 산동성 종합물류사업 첫발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은 지난 3월 3일 중국 산동성 교통운수그룹과 해운 및 내륙 물류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현대상선은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해운물류 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내륙 물류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산동성은 지난해 1천201만TEU를 처리한 세계 8위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칭다오항과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옌타이항이 위치해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이다.

또한 산동성에는 한국기업들이 유독 많이 진출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지난해 한국과 산동성의 교역량은 280억 달러에(한화 29조원) 이르고 있다. 이에 이번 MOU 체결은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에 현대상선이 종합물류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대상선이 산동성 교통운수그룹과 체결한 MOU에 따르면 첫째, 두 회사는 해운 및 내륙운송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이 강점을 지닌 중량화물선 및 벌크선대를 통해 해운운송 사업에 협력한다. 또한 산동성 교통운수그룹이 보유한 여객운송(고속버스)사업과 연계된 택배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항만·물류센터의 개발과 관리에 협력한다. 현대상선과 교통운수그룹은 이번 MOU 체결로 칭다오항에 컨테이너 물류센터를 확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컨테이너 항만 확보에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향후 합작법인 설립에 협력하기로 한다. 산동성 내에는 다양한 물류사업의 기회가 많기에 이들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산동성 교통운수그룹이 물류사업에 대한 현대상선의 적극적인 투자

와 협력을 필요로 해 이를 구체화하는 회사 설립에 합의한 것이다.

이날 현대상선과 MOU를 체결한 산동성 교통운수그룹은(Shandong Province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Group) Corp. 山東省交通運輸集團有限公司) 산동성 국유자산 관리위원회 산하 기업으로 사업분야는 고속버스 여객 및 화물운수, 대형화물사업, 물류, 연안 및 외항 해운업, 선박대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MOU 체결식에는 행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양측의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대상선 측에서는 이석희 사장, 강성일 기획지원부부장, 이영준 벌크사업부부장, 손영일 중국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산동성 교통운수그룹에서는 우종창(Wu Zong Chang) 회장, 왕치엔(Wang Qian)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여수 해양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임주빈)은 여수 앞바다의 해수면 높이, 수온, 바람 등과 함께 바닷물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 주변 바다는 대형유조선과 화물선의 입·출항이 빈번한 곳으로, 주변지형이 복잡하고 바람과 조류(潮流)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심하게 변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 해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1995년에는 씨프린스호의 유류오염사고로 735억원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해역에 전파를 사용하여 바닷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단파레이더*

를 설치하여 여수에서 광양항에 이르는 600km²(여의도 면적의 70배)해역에 대한 해수

흐름 정보를 매 30분 간격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근의 해양 관측부이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해양정보(수온, 염분, 기온, 기압, 바람, 조류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단파레이더(HF-Radar) : 육상 안테나에서 단파를 해상에 발사하고 바다표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위상차를 분석하여 해수흐름 정보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러한 바닷물의 흐름정보가 서비스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및 구조, 오염물 확산 방지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항만관제와 해양 레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주요 항로에 대하여 해양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거제도~부산 주변 해역을 관측할 수 있는 단파레이더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일본대지진 관련 성금모금운동 전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중환)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성금모금운동 전개와 함께 방사능 피폭에 대한 선박과 선원대책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3월 17일 오후 2시, 부산 마린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재난을 입은 일본선원노조 소속 조합원과 선원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맹은 성금모금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연맹 산하의 54개 가맹 단위노조로 발송하고, 연맹과는 오랫동안 형제애를 나뉘은 일본선원노조 조합원과 선원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

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를 독려했다.

오는 3월 25일까지 전개될 이번 성금 모금으로 연맹은 약 2만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긴급의장단 회의에서는 성금 모금운동과는 별도로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피폭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지역을 향해하는 우리 선박과 선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는 즉각 위험지역 항해에 관한 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은 물론, 선박 안전 계획 수립과 우리 선원들에게 일본해역에 대한 항해 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양현재단

STC-Korea에 장학금전달



양현재단(이사장 최은영)은 지난 3월 16일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STC-Korea)에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해운물류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양현재단의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올해 해

운물류학 석사과정 신입생 중 선발된 4기 장학생 2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네덜란드 폴 멩크펠트(Paul Menkveld) 대사와 네덜란드 물류대학 모리스 안센(Maurice Jansen) 학장이 직접 참석하여 장학생들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의 최초 외국교육기관인 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교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는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 위치, 지난 2007년 9월 개교식을 갖고 2008년 3월부터 석사과정 교육을 시작하여, 올해 4기 입학생을 선발했다.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이 고객과의 소통확대 및 다양한 정보전달을 위해 한국선급 공식 기업 블로그(<http://blog.naver.com/krblog>)를 개설했다.

한국선급 블로그는 국제해사동향, 최신 기술소식 및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선급 내부 행사소식이나 부서소개, 동아리 활동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네티즌에게 좀 더 친근한 한국선급의 모습을 알릴 수 있게 제작됐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

츠로 고객과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블로그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료 기준 전년도 대비 20% 성장기록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이윤재)은 지난 3월 16일 제11차 정기총회에서 금년도 갱신 결과 210개 회원사, 872척, 1001만톤, 보험료 3,018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험료 기준 전년도 대비 20% 성장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창명해운 이경재 회장, 현대상선 강성일 상무, 범한상선 백성호 사장이 이사로 증임됐으며 사조산업 이갑숙 사장이 새로 선임됐다.

KP&I 관계자는 이번 성장의 배경에 대해 “사고 발생시 조합원의 걱정과 관심을 최대한 고려한 신속한 사고처리와 대응, 전 세계적 현신적 지급 보증서 제공노력, 안정적 재보험 구조에 따른優良 경쟁력, 시간차·언어장애 없는 전문적 초기 사고처리 대응, 해상운송·해상보험 및 해양사고 처리에 관한 전방위 상담서비스 등을 높게 평가한 우리 해운사로부터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후원을 받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KP&I에 따르면, 자산은 지난 5년간 5배로 성장했고, 자본은 6배 증가했으며, 비상준비금은 2010년 당기순이익 65억원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포함하여 75억원이 증가한 184억을 기록했다.

IG클럽의 책임준비금 대비 총자산이 평균 117%인데 반해, KP&I는 약 190%여서 KP&I의 자산 건전성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으로 법정된 KP&I는 더욱 빠른 속도로 비상준비금을 확충할 수 있게 되어 자산건전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케이프사이즈 선박과 월드와이드 항해선박

을 제한 없이 인수하고 있는 KP&I는, 지속성장 전략으로써 FD&D담보개시, 해외시장개척, IG와의 제휴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P&I는 2020년 보험료 1억달러, 가입톤수 2,000만톤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QR코드 제작으로 모바일 웹 도입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황규호)이 연맹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의 QR코드와 연맹을 알릴 수 있는 모바일 웹을 제작했다.

지난 3월 8일 해양소년단은 연맹만의 특색을 살린 QR코드로 연맹 이미지 상승에 기여하고, 다양한 연맹 활동에 대해 단원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QR코드와 모바일웹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폰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연결되는 모바일 웹은 해양소년단 소개, 지방연맹 안내, 동영상/사진, 웹진 '바다친구들', 사진 콘테스트 안내, 메인 페이지 등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해양소년단은 앞으로 청소년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진 콘테스트를 통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고, 웹진 '바다친구들'을 격월간 발행하며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국해양대 인사발령 단행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3월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했다.

해양과학기술대학장에 이한석 교수, 기획처 부처장에 최은순 부교수, 해양과학기술연구소장에 이호진 부교수, 산학협력단장에 김의간 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에 홍성화 조교수, 국제대학 행정실장에 조말순, 해기교육품질보증센터소장에 김종호 교수 등이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승진인사발령

연구위원으로는 이성우(글로벌·미래연구본부) 연구위원, 김형근(항만·물류연구본부)연구위원, 남정호(해양연구본부)연구위원, 강종호(수산연구본부)연구위원 승진이 있었다.

부연구위원으로는 박광서(글로벌·미래연구본부)부연구위원, 박수진, 홍장원, 장원근(해양연구본부)연구위원 승진이 있었다.

해기사협회

석해균 선장에게 공로패 전달



한국해기사협회 민홍기 회장은 지난 3월 17일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 '아덴만 여명작전' 중 총상을 입고 입원 치료받고 있는 석해균 선장

을 위문하고, 3만여 해기사를 대표하여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민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인명과 선박을 무사히 구출하는데 살신성인의 정신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해기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조속히 완쾌하여 바다로 돌아와 해운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해기사협회는 지난 3월 16일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윤리헌장 선포식 개최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이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 윤리경영 중장기 전략체계 및 로드맵 발표, 윤리헌장 선포를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단의 윤리경영 의지를 고취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날 발표한 윤리경영 로드맵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 투명경영, 반부패·청렴활동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공단은 3월 7일 자로 김현종(金顯鍾) 전 국토해양부 부이사관을 해양보전본부장(상임이사)에 임명했다.

신임 김현종 본부장은 1984년 구 해운항만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의 해운·항만, 수산 및 해양개발 정책 부서 등에서 두루 근무하여 해양분야에 폭 넓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국 웨일즈 대학원과 캐나다 델하우지 대학원에서 국제운송학(석사) 및 해양관리학을 공부한 김 본부장은 국제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근무시에는 선발팀장으로 파리에 파견되어 현지 유치교섭 실무 책임자로 활약한 바 있다.

해운조합

제13대 회장에 김시전씨 선출



김시전 청남해운(주) 대표이사가 한국해운조합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9일 한국해운조합은 제13대 회장으로 김시전 청남해운 사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시전 회장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해운조합 15대~16대 대의원 및 제17대~19대 부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청남해운(주) 대표이사 및 부산 거삼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